



한글파크 매장 풍경.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어 교재 전문 강남역

‘한글파크’

‘한국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사람 위해’
‘한국어의 세계화’ 지향...한류 열풍도 한몫

아시아 전역에 퍼진 ‘한류’ 붐을 타고 ‘한국적’인 모든 상품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되는 추세다. 최근 관광객뿐 아니라 ‘한국을 배우자’는 의지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전문 서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10일 강남 시사일본어사 지하에 ‘한글파크’라는 명패가 달렸다. 일본어 보급에 앞장 서온 시사일본어사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한 ‘한국어 보급’의 첫 발판을 마련한 것.

“일본이나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체계적인 교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어학당 교재가 거의 대부분 이거든요. 그런 교재들은 수급이 어려우니 자체 제작한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는군요. 그래서 한국어 교재 편찬과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한글파크 정기선 이사.

한글파크 정기선 이사의 설명이다. 한글파크는 시사일본어사의 자회사인 ‘랭귀지스쿨’ 출판사를 통해 한국어 교재를 출간해 오고 있다. 한글파크에는 연세, 이화, 경희 등 대학 교재는 물론, 자습서, 교수법, 사전, 수입도서 등 700종의 한국어 교습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어학당을 제외하고는 출판사에서 한국어 교재를 별로 출간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한글파크’를 통해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출판사들도 한국어 교재를 많이 출간해야 더 질 높은 교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형서점에도 한국어 교재 판매는 열악한 상태다. 한글파크는 중소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교재 보급에도 앞장 서 판로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현재로서는 일본인들이 가장 높고 중국, 영어권 나라 고객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기획단계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나, 외국에 나가 한국어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에게 홍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재 제작에 있어서도 여러 계층을 고려해 차등을 두어 다양한 학습내용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 어학당이 네 군데 있습니다. 각 사설학원도 늘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전국적으로 대학별 어학당도 많이 개설됐기 때문에 한국어 시장은 더 넓어지겠죠.”

국내 출간 교재는 물론 한전에는 수입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다. 잠시 여행온 단기 체류자에서부터 어학연수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만든 교재 설명이 정서에 맞기 때문에 자주 찾는다고 한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1~2년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같은 반응으로는 앞으로 1년 내 좀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동경에 2호점을 열 예정입니다.”

정기선은 “국내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한국어 교재보다 해외에서 만드는 교재가 더 많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한글파크’가 한국어를 알리는데 일조하는 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